

광주시, 올해 청년정책 96개 사업 3346억 투입

정책조정위, 시행계획안 심의·의결 주거·복지 역점...일자리 사업 33개 구직수당·일경험드림·창업특례보증 "AI·미래차 중심 창업 성공률 제고"

광주시가 올해 총 사업비 3346억원을 투입, 28개 부서에서 96개 청년사업을 추진한다. 광주지역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2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강기정 시장과 관련 실·국장, 청년정책 활동가 및 전문가 등 26명으로 구성됐다. 광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사결정이 필요한 청년정책을 심의·추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광주시 최고 청년정책 심의·의결기구이다.

위원회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비전으로 삼아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96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청년과 기업이 함께 원하는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청년구직활동수당', '청년일경험드림사업', '청년창업 특례보증' 등 33개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전체 청년정책 중 가장 많은 사업을 펼치며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구직활동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에 대비해 구직활동수당을 1개월 더 늘려 50만원씩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경험드

림사업은 청년 수요를 반영해 근무기간을 기존 주 25시간 5개월과 신규 주 40시간 3개월로 나눠 운영한다. 참여사업장에서 청년을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채용연계를 강화한다.

주거 분야는 8개 사업에 1313억원을 들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맞춤형 주택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등 주거 부담 경감 사업과 '상무지구 광주형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남도학숙 운영' 등 주거 공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교육 분야는 24개 사업에 1238억원을 투입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지역 내 취업·창업,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한다.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광주인공지능사관학교 운영', '소프트웨어(SW) 전문인재 양성' 등 미래산업 대비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도시재생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산업을 요구하는 특화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복지·문화 분야는 24개 사업에 326억원을 투입해 지역청년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를 5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13통장', '청년드림은행(재무상담소)',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청년층을 위해 34세까지인 K-패스보다 39세까지 30% 환급되는 '광주형 대중교통비 지원(광주 G-패스)'을 새롭게 시작하는 등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구축과 함께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 문화기반 조성사업을 시행한다.

청년정책 과정과 지역의제 발굴에 참여를 보장하는 참여·권리 분야는 7개 사업

에 19억원을 들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통합플랫폼 등을 운영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광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취업과 결혼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든다"며 "인공지능(AI)과 미래차를 중심으로 산업을 키우고 창업 성공률을 높여서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정책으로 청년에게 힘이 되는 청년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이슬 공동위원장은 "청년위원들이 그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지혜를 발휘해 광주시 청년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주 청년정책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전남도, 소상공인 위생용품 꾸러미·공공요금 지원

소규모 음식점 2만개소 대상 김 지사 "현장 건의 적극 검토"

전남도는 20일 어려운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해 소규모 음식점 2만 개소에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30만원씩 지원하고, 5만원 상당 위생용품 5종 꾸러미 1만 개를 만들어 전달했다.

이날 도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송기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장, 시군외식업지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사업은 최근 비상사국에 따라 전반적으로 침체한 소비심리로 어려운 중소상공인 지원과 국민의 일상 회복, 경제적 충격 완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전남도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한 1185억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다.

위생용품 꾸러미 지원사업은 전남에 위치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1만 개소에 지원된다. 꾸러미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로 꼭 필요한 손님용 앞치마, 남은 음식 포장 용기, 조리용 투명 마스크, 렌지후드 세정제, 뿌리는 곰팡이 제거제 등 5개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설 명절 전 배부될 예정이다

또한 전남도는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영세음식점 2만 개소에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 총 30만원을 일시에 지원키로 했다. 지원 대상은 2월부터 사업장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음식점을 되살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총 9억원을 지원, 지역 공공 상생배달업을 통한 소비자 대상 할인 및 배달비 지원 등 이벤트도 진행한다.

전달식에 이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남도지회 임원진과 간담회 자리도 가졌다. 외식업 관계자들은 외식 문화 확산, 지역 사랑상품권 홍보 등 외식 장려를 위한 캠페인 전개와 함께 국산 김치 사용업체 지원 방식 조정,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외식업 현장의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소비심리가 크게 감소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외식업체에 이번에 지원되는 공공요금, 꾸러미 물품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민생경제 극복을 위한 소규모 음식점 꾸러미·공공요금 지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0일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열린 '소규모 음식점 꾸러미·공공요금 지원'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들의 민생경기 조기회복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 노사민정, GGM 조정·중재특위 본격 가동

전원합의체 상생·협력방안 마련 24일부터 근로자·사측 의견청취

광주글로벌모터스(GGM)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 노사민정 조정·중재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노사민정은 최근 조정·중재특위 구성을 마치고 지난 17일 첫 회의를 열어 특위 운영방향을 확정했으며, 24일부터 당사자 의견 청취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17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광주글로벌모터스

(GGM) 현안 해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개최했다.

특위는 GGM 관련 지역사회 위기감이 커짐에 따라 노사민정 현안을 조정·중재해 상생·협력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시의회, 행정기관 등 각계 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정·중재 방향, 중재안 결정방법, 회의일정, 의견청취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조정·중재 방향은 노사민정 협정서를 준수하면서 현행 노동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당사자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위한 전원 합의체로 제시하기로 했다.

또 GGM의 현안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을 인식하고 주 1회 이상 회의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GGM 당사자 간 공감할 수 있는 중재안 마련을 위해 GGM 근로자 및 경영자, 주주, 현대자동차, 광주시, 상생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여러 기관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무등산·ACC, '한국관광 100선' 선정

무등산 6차례 뽑혀 대표관광지로 인증샷·여행후기 이벤트 진행키로

광주 대표 관광지인 무등산국립공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뽑혔다.

20일 광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국내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홍보하는 '한국관광 100선'에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7회째를 맞는 '한국관광 100선'은 관광지의 대표성, 매력, 성장가능성 등을 서면평가와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2년마다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이번이 '한국관광 100선' 6회째 선정으로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자리 잡았다.

무등산국립공원은 빼어난 자연경관과 역사적·문화적·지질학적 가치를 가진 광주의 명소로,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풍광과 다양한 등산 코스를 제공하며 국내외 등산객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현대적이고 독창적인 건축물과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며 광주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광주는 그동안 △1·2회 무등산국립공원 △3회 광주대인예술시장, 양림동역사문화마을 △4회 무등산국립공원, 양림동역사문화마을 △5회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6회 무등산국립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역사문화마을, 5·18기념공원이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노병하 기자

올해의 섬 '여서도'...남쪽 영해기점 유인도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지정

해양수산부와 행정안전부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올해의 섬'으로 완도군에 위치한 영해기점 유인섬인 '여서도(麗瑞島)'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완도와 제주도 중간 지점 먼바다에 위치한 여서도는 전남 완도군 청산면에 속해있으며, 면적 4.19㎢, 해안선 길이 13.33km의 작은 섬으로 100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해변의 기암괴석과 다양한 수종의 난대림이 어우러져 빼어난 풍경을 지니고 있으며, 마을을 에워싼 돌담은 여서도의 대표적 자산으로 꼽힌다.

해수부와 행안부는 영해기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23년 신안군 가거도를 시작으로 매년 영해기점 유인섬(7개) 중 1개 섬을 '올해의 섬'으로 지정하고 있다.

영해기점 도서는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양

관할권 외측 한계를 결정하는 시작점에 해당한다. 해양영토 측면에서만 아니라 국방·안보·생태·환경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매우 큰 곳이며, 우리나라 23개 영해기점 섬 중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유인섬은 총 7개다.

7개 영해기점 유인섬 중 아직 올해의 섬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섬도 2029년까지 올해의 섬으로 순차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국민에게는 영해기점 섬의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